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16.(금) 06:00 < 2.16.(금) 석간 > 배포 2024. 2. 15.(목)

# 신(新)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 신(新)기업활력법 시행 앞두고 사업재편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16.(금)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新)기업활력법(7.17일 시행)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신규 투자(37.5조원)와 일자리(2만개) 창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新)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❶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❷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하여,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또한,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되었던 ❸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❹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❶자금·일감 공급, ❷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❸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新)산업정책 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불·투자 110조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총괄> |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김태형 (044-203-4230) |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석용 (044-203-4232) |
| | | | 주무관 | 석현경 (044-203-423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참고 1 사업재편 지원 주요 성과

◇ 총 473개사의 사업재편계획(고용 20,189명, 투자 37.55조) 승인

☞ 중소·중견, 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

○ (규모) 중소기업 383 (81%), 중견기업 79 (17%), 대기업 11 (2%)

○ (유형) 과잉공급 113 (24%), 신산업 357 (75%), 산업위기 3 (1%)

○ (연도) 年평균 약 59개사 승인 (사업재편심의위 개최 : '16.8월 이후 총 40차)

| 승인연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기업수 | 15 | 51 | 34 | 9 | 57 | 108 | 106 | 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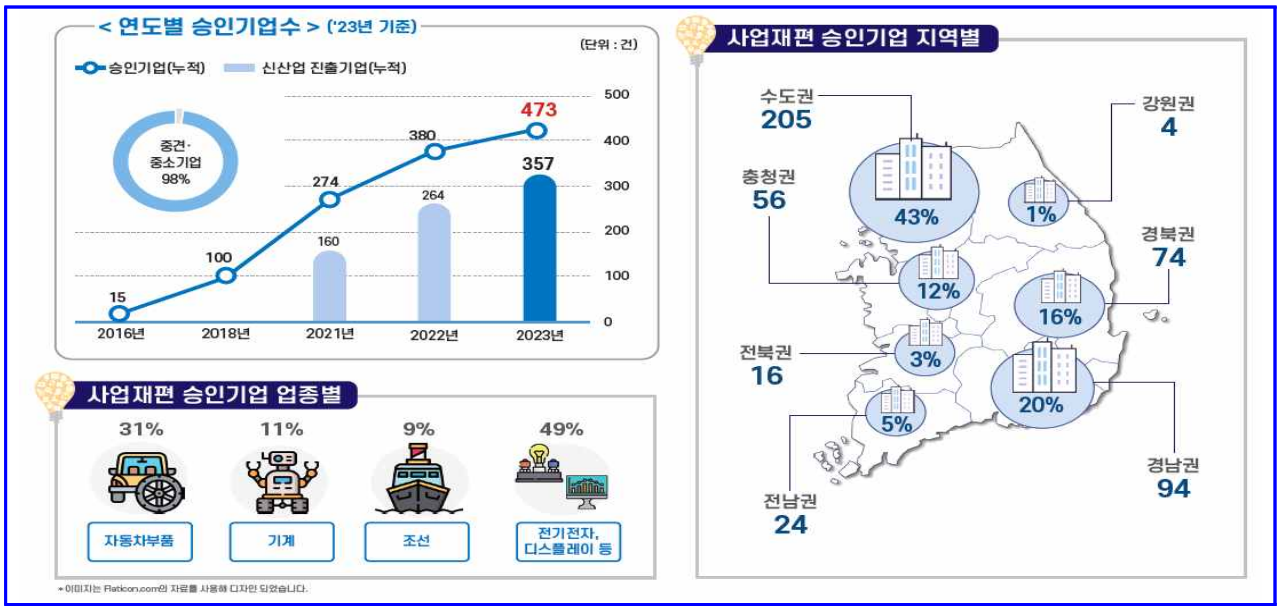
○ (지역) 非수도권 소재 57% (268개社/473개社)

| 소재지 | 수도권 | 전남권 | 전북권 | 경남권 | 경북권 | 충청권 | 강원권 |
|---|---|---|---|---|---|---|---|
| 기업수 | 205 | 24 | 16 | 94 | 74 | 56 | 4 |

○ (업종)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1% (243개社/473개社)

| 업 종 | 車부품 | 기계 | 조선 | 전기전자 | 석유화학 | 소프트웨어 | 철강 | 의료기기 |
|---|---|---|---|---|---|---|---|---|
| 기업수 | 148 | 44 | 51 | 34 | 25 | 30 | 13 | 13 |

* 서비스 19, 반도체 12, 디스플레이 12, 유통·물류 9, 섬유 8, 비철금속 8, 통신방송장비 7 등



## 참고 2 新기업활력법 주요 내용

### ❶ (적용기한)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재편 추진

○ 기존 5년 한시법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 사업재편 지원에 한계

- 한시법(前 '24.8월 일몰)을 **상시법('24.7.17 시행)**으로 전환

○ 향후 **기업 예측가능성 제고** 및 **중·장기 사업재편 지원** 가능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7 "기업활력법 상시화를 통해 사업재편 추진 안정성 확보"

### ❷ (적용대상) 경제질서 변화 선제 대응 강화

○ 과잉공급 해소·산업위기지역 대응 등 **사후적 위기대응 위주**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 지원유형 신설

○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 수요 대응** 및 **경제질서 선제 대응** 기대

### ❸ (특례범위)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

○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특례가 오히려 **신산업 진출시**에는 **적용 배제** (과잉공급 해소·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

-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보강**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시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 30%) 등 유예기간 연장 (최대 5년)

○ 디지털 전환 등 **속도가 필요한** 신산업 중심으로 **신속한 사업재편** 기대

### ❹ (지원체계) 산업별·권역별 밀착 지원 보강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 참여)를 구축해 업종별 수요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 밀착 제공

## 참고 3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주요 내용

### ❶ 제정 목적 및 정책 대상

○ (**목적**)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추진

○ (**대상**) 미래차 기술을 정의하고 SW를 정책대상으로 포괄

- SW·SW융합, 지능정보 기술이 HW의 부속개념이 아닌 별도의 미래차 부품산업 분야이자 핵심기술임을 명확히 함

### ❷ 추진체계 조성

○ (**추진기반**)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R&D 특례 및 실증 지원으로 기술개발-부품 신뢰성 확보를 연계하고 계약학과 및 겸직 특례 등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

○ (**상생협력**)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 공동 R&D 우대, 협력모델 발굴 등 기업 간 협업 모델 신설

### ❸ 사업재편 촉진

○ (**미래차 전환**) 내연차 중소·중견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

- 사업재편·전환 제도 지원요건 완화 및 효과적인 지원 수단 마련

### ❹ 공급망 강화

○ (**공급망 강화**)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 외국인·지방·U턴기업 투자보조금 특례로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요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플랫폼 구축